

## 작가노트

권기범

나는 인간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형상과 현상 그리고 사상들의 독특한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혼합되어진 이미지들을 평면과 공간 속에 다각적으로 표현한다. 이 형상들은 대부분 존재하고 있는 물상들의 이미지와 조형감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확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애매모호한 이미지들이 많다.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사상과 정의들에 의문을 던지는 이 시대의 질문들이며 모든 것을 분명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진행형의 가치 체계에 기반을 둔 표현들이다.

나는 가끔 인간의 환경과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 이미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인간은 이상으로의 안식을 꿈꾸나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의 냉정함에 직면한다. 수직과 수평의 구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현대사회의 인간관계, 비가시적인 인간의 계층, 칼날같이 직조된 건물들 그리고 이들이 관계하는 유기적인 공간들은 나의 작업에서 기하학적 도안이나 직선, 날카로운 예각의 이미지들로 전환된다. 이는 철저한 조형의 관계성과 계산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공미를 반영한다. 반면에 인간이 항상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이상향인 자연은 이런 현상을 둘러싸고 품어내며 포용하는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자연의 현상들을 이용하는 작업들은 대부분 유연하거나 계산하지 않는 우연의 표현들이 지배적이다. 이는 채집된 물성이나 사고를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서 관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중력에 의해서 변화하는 드로잉적인 요소들과 물성에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하여 만들어내는 평면작업들이 주가 된다. 극단의 대조적인 형상들을 화면 안에 재구성을 하고 여러 겹의 레이어 들을 중첩해서 인간이나 정물 그리고 꽃과 비슷한 형상들을 만든다. 이것은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관계와 사고의 겹침이고 무엇 하나 정확하게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이 시대의 정의이기도 하다.

그러진 그림들의 겹침이 고정태의 회화로 존재한다면 이 두 가지의 대립적 사고 체계는 설치 작업과 몇 가지 실험을 통해 운동태의 진행형 작업으로 전환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다양한 형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물성과 이를 지지하는 중력의 관계임을 인지하게 된다. 빛과 대기가 만든 자연의 상태에서 이런 영향을 받는 공간과 사물들은 결국 자연이 만들어내는 드로잉을 가시화 시킨다. 나의 여러 겹의 고무줄 작업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어떤 물성이 공간에 존재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극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탄성을 가지고 있는 고무줄이었다. 당겨진 줄의 탄성과 이를 통해 보여 지는 직선의 이미지들을 앞에서 언급한 수직 수평의 사고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탄성을 잃어가고 지면으로 처지는 줄의 현상은 중력에 의해서 그

어지는 흐르는 선들의 이미지와 같은 것이다.

극명하게 대립했던 사고들과 형상들도 이 같은 현상 속에 존재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선과 악, 문명과 자연, 동양과 서양은 쉽게 섞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하는 존재태의 가치는 비가시적이고 정세한 변화에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간이 믿고 있었던 가치가 변화했고 사상이 변화했으며 이로 인해 시대가 변화했다. 나는 내가 보고 있는 이 모호한 이미지들의 다양한 겹들과 변화하는 물성의 진행을 관찰하면서 인간의 관계 속의 이미지들을 표현한다.